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3, Vol. 35, No. 3, 1239-1259
http://dx.doi.org/10.23844/kjcp.2023.08.35.3.1239

OPEN ACCESS

재한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문화 적응 및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기성장주도성의 조절효과

권 란
한양대학교 / 학생

하 정 희†
한양대학교 / 교수

본 연구는 국내 유학생의 40% 이상을 차지하여 7만 명에 육박하는 중국 유학생들의 유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하여 중국 유학생들이 유학 생활 중에 느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문화 적응 및 정신건강 문제 간에서 자기성장주도성이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중국어로 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사회문화 적응 척도, 우울불안스트레스 척도 및 자기성장주도성 척도로 구성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SPSS 26.0을 이용하여 382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기성장주도성은 계획성, 변화에 대한 준비, 의도적 행동 및 자원 활용 등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기성장주도성의 하위요인 중 계획성이 두 종속변수인 사회문화 적응과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조절효과를 보여 계획성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문화 적응과 정신건강 문제 각각에 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본 연구 결과의 의의, 상담 분야에서의 활용방안, 제한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중국유학생, 자기성장주도성,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문화 적응, 정신건강 문제

† 교신저자 : 하정희,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Tel: 02-2220-2613, E-mail: hajung366@hanyang.ac.kr

Copyright ©2023,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 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www.kci.go.kr

유학생 영입은 대학의 혁신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고등 교육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다(Wildavsky, 2010). 출생률 저하로 인해 해마다 대학 신입생 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국내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대경일보, 2021.01.25., 매일경제, 2019.08.29.). 그 결과로 국내 유학생 수는 2010년의 83,842명에서 2022년 166,893명으로 두 배 증가하였고, 2022년 기준 중국 국적의 유학생 수는 67,439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40.4%를 차지해 국가별 1위이다(교육통계서비스, 2022). 중국인 유학생이 급증하게 된 데는 한국의 국가적 위상의 향상, 인접한 지리적 위치, 양국의 역사와 문화적 동질성 및 한류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김종원, 김은정, 2019). 중국인 이민자들은 국내에서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오랜 기간 삶의 기반을 구축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 반면에 중국인 유학생들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에 언어적, 문화적 차이가 있는 외국에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야 하고, 외국어로 대학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사회적 지지자원도 제한적이다 보니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정도가 중국인 이민자에 비해 심하다(장이츠, 김민아, 2021; 정혜선, 2016). 대학 캠퍼스에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에 대하여 시끄럽고 더럽다는 이유로 이들과의 접촉을 꺼리거나 중국 유학생이 많은 수업은 거르는 등 차별과 혐오도 늘고 있다(머니투데이, 2019.1.14.). 이에 더하여 중국이 코로나19의 발원지가 되면서 해외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은 주류 사회로부터 차별과 편견을 받고 있고(Ma, & Zhan, 2020) 그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우울 및 불안 등 심리사회적 고통을 경험하기도 한다(Song et al., 2021; Zhao, 2020). 한국에서도 중국 유학생들은 사회적 낙인과 다양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기존보다 더 심각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장이츠, 김민아, 2021).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문화적응 과정에 삶의 변화로 인해 경험하는 스트레스(Berry et al., 1987)로서 이는 사회문화 적응을 어렵게 하고(Mahmood, & Burke, 2018) 우울, 불안 및 신체화 증상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한다(김경숙, 김민희, 2014; Hamamura, & Laird, 2014; Sandhu, & Asrabadi, 1994). 유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적응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에 의하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은 사회문화적 적응과 개인의 심리적 적응으로 나뉜다(Aljaberi et al., 2021). 사회문화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은 개념적으로 구별되는데, 사회문화적 적응은 호스트 문화에 적응하고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심리적 적응은 정신건강 상태와 심리적 웰빙을 의미한다(Berry, & Sam, 2006). Yakunina 등(2013a)은 자신들의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만 확인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문화 적응 간의 관계를 보지 못한 것을 연구의 한계점으로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문화 적응과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확인하고자 한다.

정신건강 문제는 비교적 포괄적인 용어로서 Koneru 등(2007)의 연구에서는 우울, 불안, 고통, 약물 남용 및 섭식장애 등 다양한 증상을 정신건강에 포함시켰고 Yoon 등(2013)의 연구에서는 우울, 불안, 심리적 고통과 부적 정서를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 불안 및

www.kci.go.kr

스트레스를 측정하여 정신건강 문제를 확인하고자 한다(김정희, 2022; Taušová et al., 2019).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한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증상 간의 유의한 상관을 입증한 연구(Lee et al., 2004)를 포함한 다수의 연구에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증상 간의 유의한 상관을 보고하였다(Oh et al., 2002; Yang, & Clum, 1994). 반면에 일부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에 어려움이 클수록 높은 불안을 경험하지만, 우울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거나(Cintron et al., 2005) 문화적응 지향성에 따라 우울과의 상관이 유의하거나 그렇지 않게 나타나는 등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발견하였다(Abbott et al., 2003; Virta et al., 2004). 이런 일치되지 않은 결과들을 통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의 관계에서 조절변수가 개입될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서영석, 2010; Baron, & Kenny, 1986).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문화 적응 및 정신건강 문제 간의 관계에서 자기성장주도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성장주도성(Personal Growth Initiative, PGI)은 강점 기반의 변인으로서(Yakunina et al., 2013b) 성장과 관련된 능동적이고 의도적인 자기 개선 기술의 집합이다(Robitschek, 1998). 자기성장주도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및 도전적인 사회적 상황을 의도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자기성장주도성이 높은 유학생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덜 지각함으로써 사회문화적으로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된다(Yakunina et al., 2013b). 자기성장주도성은 성격 특성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Robitschek et al., 2019), 성격 변인은 스트레스 및 대처에 있어서 외국이라는 환경에 대한 적응을 조절할 수 있게 한다(Searle, & Ward, 1990). 자기성장주도성은 해외에서는 지금까지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문화적응과 관련지어 다수의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Robitschek et al., 2022; Taušová et al., 2019; Weigold et al., 2020).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극소수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마저도 진로와 관련된 연구에 그치며(김용운 외 2021; 김지근, 이기학, 2011) 주로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척도를 활용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김지근, 이기학, 2011; 이지원, 이기학, 2015). 자기성장주도성과 대학생활 적응 및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연구가 한편 있지만, 이는 유학생이 아닌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이고 이 역시 단일요인 척도를 사용하였다(김영린, 이기학, 2012).

Robitschek 등(2012) 연구팀은 다차원 요인으로 구성된 자기성장주도성 척도(PGIS-II)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인지적 측면(계획성, 변화에 대한 준비)과 행동적 측면(의도적 행동, 자원 활용)에 대한 네 개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인지적 측면에서 변화에 대한 준비는 개인이 성장하고 싶은 영역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적인 성장과 관련된 긍정적인 신념,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고, 계획성은 개인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개발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행동적 측면에서 의도적 행동은 개인의 성장을 위한 행동 계획의 의도적인 실천을 의미하고 자원 활용은 성장 지향적 목표 달성을 촉진하는 행동을 나타낸다(Woerkom, & Meyers, 2019).

개인은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성장을 경험한다고 설명되어지는데(Robitschek, 1998), 하나는 개인이 의도하지 않지만 인식하지도 않은 채 일어나는 발달적 성장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아이들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잡한

www.kci.go.kr

형태의 도덕적 추론을 발달시키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다음은 개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환경을 인식하게 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경우로서, 여기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때 개인은 거부감을 동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이 온전히 인식하면서 의도적으로 성장하는 경우인데, 개인이 자신의 직업 선택에 만족하지 못하여 더 나은 직업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개인의 성장이 의도적일 때 개인은 변화를 충분히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그 변화의 과정에 참여한다(Robitschek, 1998). 선행연구에 따르면, 의도적인 개인적 성장은 심리적 안녕과 정적 상관이 있는 반면, 의도적이지 않은 성장은 심리적 안녕과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obitschek, 1999; Robitschek et al., 2012). 개인의 성장이 의도적이지 않다면 그들은 이러한 변화를 지속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그가 새로운 상황에 보다 잘 적응하기 위해 개인의 성장을 의도적으로 촉진하는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Shigemoto et al., 2017).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로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정체감을 형성하며 사회적 친밀감을 형성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등 여러 발달과업이 있다(문정희, 천성문, 2020; Lapsley et al., 1989). 그러나 중국은 한자녀가정 구조로 인해 조부모와 부모 모두 외동 자녀를 과보호하여 자녀는 독립심과 사회적응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그와 더불어 교육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자녀들은 후기 청소년 시기에도 부모와 심리적 독립을 충분히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유계숙, 유행, 2014). 이는 제도적 해결이 필요하지만, 그 주체인 당사자의 의식 변화와 성장을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장서흔과 이용진(2019)의 연구에 의하면, 재한 중국 유학생들의 자기성장 유학동기에는 능력향상, 취업준비, 도전, 지식 습득 및 독립심 향상 등 자기 성장에 대한 내적 동기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자기성장주도성은 심리적 독립을 이루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며 정신건강 문제를 주도적으로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김영린, 이기학, 2012; Yakunina et al., 2013b). 자기성장주도성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주로 미국과 유럽에 유학 중인 여러 대륙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Yakunina 등(2013b)은 연구에서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이질적인 대상을 동시에 포함하여 그룹 간의 차이를 모호하게 한 것을 연구의 제한점으로 언급하면서 미국과 유럽 외 타 문화권에서도 해당 변인의 효과성에 대해 검증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일지라도 인구 구성, 다양성의 환경, 인종 혹은 민족 간 관계의 역사가 반드시 유사한 것은 아니기에 인접한 나라의 중국 유학생이어도 한국 유학 생활 중에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다(남순현, 2021; 하정희, 2008; Yoon et al.,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유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겪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문화 적응과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성장주도성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중국어로 된 척도를 이용함으로써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부정확하게 답변할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였다. 자기성장주도성의 조절효과가 확인될 경우, 중국 유학생들이 유학 생활 중

www.kci.go.kr

에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이들이 한국의 사회문화에 더욱 잘 적응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줄이는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상담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재한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기성장주도성, 사회문화 적응 및 정신건강 문제 간에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재한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문화 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기성장주도성의 하위변인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 재한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의 관계에서 자기성장주도성의 하위변인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2022년 11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구글 설문지를 통하여 현재 한국에 거주하면서, 국내 대학에서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14부의 설문지가 수집되었고 그중 5명은 한국 외 지역에 거주 중이므로 연구에서 배제되었고 2명은 유학 준비 중이거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불성실하게 입력하여 배제되었다. 다음, 무작위 응답으로 인한 설문조사의 타당도 위협을 줄이기 위하여 설문 문항 중간에 타당성 체크 문항(“이 문항은 2를 선택해주세요”)을 추가하였는데(Choi et al., 2017) 해당 문항을 틀리게 표시한 참가자 25명도 연구에서 배제하여 최종 연구에 포함된 참가자는 총 382명이다. 실제로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N*=382)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76	19.9
	여	306	80.1
	계	382	100.0
나이(만)	10대(18~19)	11	2.9
	20대(20~29)	323	84.6
	30대(30~39)	43	11.3
	40대(40~49)	4	1.0
	50대(50~59)	1	0.3
	계	382	100.0
대학 소재지	서울	352	92.1
	경기	20	5.2
	그 외 지역	8	2.1
	미기재	2	0.5
	계	382	100.0
학력	학부	134	35.1
	석사	168	44.0
	박사	78	20.4
	박사후	2	0.5
	계	382	100.0
한국어 수준 (토픽 급수)	1	14	3.7
	2	30	7.9
	3	92	24.1
	4	124	32.5
	5	121	31.7
	6	1	0.3
	계	382	100.0
거주기간	1~2년	203	53.1
	3~5년	108	28.3
	6~10년	63	16.5
	11년 이상	8	2.1
	계	382	100.0

www.kci.go.kr

측정도구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ASSIS)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Sandhu와 Asrabadi(1994)에 의해 개발된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ASSIS) 척도를 재한 중국 유학생에게 맞게 재구성하고 중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정옥정 외, 2021). 영문 척도는 36개 문항이 7개의 하위 영역(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 문화적 충격, 죄책감, 기타)으로 구성되었고, 중국어 척도는 정옥정 등(2021) 연구팀이 ASSIS의 여러 한국어 버전 척도들, 예를 들면 이승종(1995)의 번역본 척도, 황지인의 수정판(2008) 척도, 박정우의 인용판(2016) 척도 등을 참고하여 예비문항을 작성하고 이를 번역 및 타당화하여 7요인 31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정옥정 등(2021)이 번안한 중국어 척도에서는 Sandhu와 Asrabadi(1994)의 척도에서 기타 요인이 삭제되고 사회적 고립감 요인이 추가되었다. 척도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에서 완전히 동의한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큼을 의미한다. 두 버전의 척도 모두 요인분석을 진행하여 구성타당도를 확보하였다. Sandhu와 Asrabadi(1994)가 개발한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92~.94이고 정옥정 등(2021)이 번안한 재구성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93이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95이다.

자기성장주도성 척도 (PGIS-II)

자기성장주도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영문 버전의 Personal Growth Initiative Scale-II(PGIS-II, Robitschek et al., 2012) 원척도를 Wang(2020)이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버전을 사용하였다. PGIS-II 척도는 기존에 단일차원으로 구성되었던 PGIS(Robitschek, 1998) 척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16개 문항으로 구성한 다차원 척도로서 계획성(5문항), 변화에 대한 준비(4문항), 의도적 행동(4문항) 및 자원 활용(3문항) 등 4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문항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6점)의 6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성장주도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두 버전 모두 요인분석을 진행함으로 구성타당도를 확보하였다. Robitschek 등(2012)의 척도의 내적일치도는 .90~.94이고 Wang(2020)이 번안한 척도의 내적일치도는 .94이며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일치도는 .95이고 하위 척도는 각각 계획성 .87, 변화에 대한 준비 .82, 의도적 행동 .87, 자원 활용 .82로 나타났다.

사회문화 적응 척도 (SCAS)

사회문화 적응의 어려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Ward와 Kennedy(1999)가 사회문화 적응 척도(Sociocultural Adaptation Scale)를 개발하고 Tan(2013)이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국어로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었고 Tan(2013)의 척도는 학업(5문항), 일상생활(8문항), 대인관계(8문항), 언어(4문항) 및 가치관(4문항) 등 5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척도는 어려움 없음(1점)에서 매우 어려움(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문화 적응에 어려움이 큼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척도 전체에 대하여 역채점을 실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을 잘하는 것으

www.kci.go.kr

로 변환하였다. Ward와 Kennedy(1999)의 척도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인타당도를 확보하였고 Tan(2013)의 버전은 심리적 적응, 사회적 지지 척도와의 상관을 확인함으로써 수렴타당도를 확보하였다. Ward와 Kennedy(1999)의 척도는 다양한 대상으로 내적일치로를 확인하였는데 그 값은 .75에서 .91의 범위에 분포되었고 Tan(2013)의 척도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90이고 본 연구에서는 .94이다.

우울불안스트레스 척도 (DASS-21)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문제를 우울불안스트레스 척도로 측정하였다. 우울불안스트레스 척도는 Lovibond와 Lovibond가 1995년에 42문항으로 개발하였고 그 이후 많은 revise 버전이 출현하였다. Moussa 등이 2001년 중국어 번체로 번역 및 타당화하였고 Gong 등(2010)이 이를 다시 중국어 간체 버전으로 변환 및 타당화하였다. 해당 척도는 총 21문항으로 우울, 불안 및 스트레스 각 요인이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리커트 척도 점수는 해당하지 않는다(1점)에서 항상 해당한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Gong 등(2010)의 척도는 확인적 요인분석 및 BDI, SAI, TAI 등과의 상관을 확인함으로 구성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내적일치도는 Lovibond와 Lovibond(1995)의 척도에서는 .89이고 Gong 등(2010)의 버전에서는 .74이며 본 연구에서는 .94이다.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모든 자료는 SPSS 26.0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먼저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변인 간의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변인 간의 상관은 피어슨 상관을 확인하였다. 독립변수와 조절 변수의 점수는 각 변수의 평균 점수를 뺀 평균 중심화 값을 사용하였다. 설문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나이, 성별, 한국 거주기간, 학력, 한국어 수준 등 인구학적 정보를 함께 수집하였고 이 가운데 종속변수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Hardin et al., 2007; Robitschek, & Kashubeck, 1999). 다음 절차로 본 연구에서는 재한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문화 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자기성장주도성의 하위척도들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3단계에 걸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종속변수와 상관이 유의한 통제변수들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조절변수인 자기성장주도성의 네 하위변인을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기성장주도성의 하위변인 간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절효과가 유의한 경우, 조절효과의 사후검증을 위해 Aiken 등(1991)이 제안한 방식을 사용하여 조절변수의 평균을 중심으로 1 표준편차를 더한 값과 뺀 값을 기준으로 조절변수의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및 평균으로 연구참여자들을 구분하였다. 이후 각 집단별로 단순 회귀선을 그래프로 도식화하여 조절효과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측정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www.kci.go.kr

표 2.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변인 간 피어슨 상관

	1	2-1	2-2	2-3	2-4	3	4	5	6	7	8	9
1	-											
2-1	-.130*	-										
2-2	-.109*	.848**	-									
2-3	-.073	.766**	.743**	-								
2-4	-.056	.647**	.680**	.687**	-							
3	-.460**	.246**	230**	.210**	170**	-						
4	.500**	-.267**	-.246**	-.232**	-.230**	-.413**	-					
5	-.108*	.073	.082	.099	.034	.564**	-.106*	-				
6	-.027	.018	-.023	.036	.006	.117*	-.136**	.237**	-			
7	-.007	.011	.000	.023	.012	.019	.027	.217**	.050	-		
8	.002	.033	.063	.040	.026	.181**	-.165**	.223**	.511**	.027	-	
9	-.028	-.075	-.074	-.089	-.053	.286**	-.063	.408**	.376**	-.053	.385**	-
M	2.39	4.30	4.42	4.60	4.52	3.37	1.81	3.81	1.86	1.80	24.70	1.68
SD	.72	.99	.97	1.01	1.03	.70	.62	1.09	.75	.40	6.04	.82
왜도	.41	-.33	-.56	-.67	-.55	-.26	.76	-.67	.30	-1.51	-6.45	.89
첨도	-.20	-.28	.22	.14	-.15	-.69	-.02	-.14	-.92	.29	97.29	-.28

주.N=382. *p<.05, **p<.01, ***p<.001, 1: 문화적응 스트레스, 2-1: 자기성장주도성_계획성, 2-2: 자기성장주도성_변화에 대한 준비, 2-3: 자기성장주도성_의도적 행동, 2-4: 자기성장주도성_자원 활용, 3: 사회문화 적응, 4: 정신건강 문제, 5: 한국어 수준, 6: 학력, 7: 성별, 8: 나이, 9: 거주기간

및 변수 간의 상관은 표 2에 제시하였다.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한 독립변수의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Curran et al., 1996).

조절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에서 조건부 효과를 용이하게 해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에 대하여 평균 중심화한 값을 사용하였고 조절효과 검증은 3단계에 걸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문화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기성장주도성의 하위척도들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1단계에는 사회문화 적응 종속변수와 상관이 있는 한국어 수준, 학력, 나이 및 거주기간을 공변인으로 투입하였고 1단계 설명력은 32.8%이고 통제변인 중 한국어 수준이 사회문화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는 독립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조절변수인 자기

www.kci.go.kr

표 3.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문화 적응의 관계에서 자기성장주도성의 조절효과 검증

단계	변수	*B*	*β*	*t*	R^2	ΔR^2	*F*
1	한국어 수준	.346	.539	11.582***	.328	.328	45.903***
	학력	-.068	-.073	-1.446			
	나이	.009	.074	1.454			
	거주기간	.055	.065	1.300			
2	한국어 수준	.304	.473	11.742***	.518	.190	29.497***
	학력	-.079	-.085	-1.945			
	나이	.009	.076	1.747			
	거주기간	.083	.097	2.257*			
	AS	-.378	-.387	-10.586***			
	PGI_PL	.089	.126	1.697			
	PGI_RC	.003	.004	.048			
	PGI_IB	.011	.016	.255			
	PGI_RU	.028	.041	.768			
3	한국어 수준	.307	.478	11.969***	.534	.016	2.997***
	학력	-.090	-.096	-2.218*			
	나이	.008	.073	1.671			
	거주기간	.080	.094	2.197*			
	AS	-.289	-.296	-1.417			
	PGI_PL	-.427	-.604	-2.426*			
	PGI_RC	.214	.296	1.076			
	PGI_IB	.137	.198	.891			
	PGI_RU	.227	.334	1.785			
	AS x PGI_PL	.215	1.130	3.053**			
	AS x PGI_RC	-.088	-.476	-1.118			
	AS x PGI_IB	-.053	-.301	-.853			
	AS x PGI_RU	-.083	-.474	-1.585			

주. N=382, $^{*}p$<.05, $^{**}p$<.01, $^{***}p$<.001, AS: 문화적응 스트레스, PGI_PL: 자기성장주도성_계획성, PGI_RC: 자기성장주도성_변화에 대한 준비, PGI_IB: 자기성장주도성_의도적 행동, PGI_RU: 자기성장주도성_자원활용 학력 - 학부: 1, 석사: 2, 박사: 3, 박사후: 4, 한국어 수준 - 토픽 급수(1~6급), 거주기간 - 1~2년: 1, 3~5년: 2, 6~10년: 3, 11년 이상: 4

www.kci.go.kr

성장주도성의 4개 하위요인을 투입하였고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설명력은 1단계에 비하여 19.0% 증가한 51.8%였으며 그중 독립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β=-.387, p<.0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각각의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고 전체 설명력은 2단계에 비하여 1.6% 증가한 53.4%로 나타났다. 그 중,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기성장주도성의 하위요인인 계획성의 상호작용 항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218, p<.01). 즉 자기성장주도성의 하위요인인 계획성이 조절변수로 작용하여 계획성의 수준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문화 적응의 관계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절효과가 유의한 경우에 대해서 조절효과의 사후검증을 위하여 조절변수의 평균에서 1 표준편차 값을 더한 값과 뺀 값을 기준으로 조절변수의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및 평균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다음 각 집단의 단순 회귀선을 그래프로 도식화하여 조절효과의 영향을 추가 확인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을 볼 때,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문화 적응의 관계는 자기성장주도성의 계획성 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계획성 수준이 낮을 때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문화 적응 간의 기울기가 급격히 감소하는(b=-.587, p<.001) 반면, 계획성 수준이 높을 때,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문화 적응 간의 기울기는 보다 완만하게 감소하였다(b=-.161, p<.05). 이러한 결과를 통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클수록 사회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때 계획성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따른 사회문화 적응의 어려움을 완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기성장주도성의 하위척도들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고 결과는 표 4와 같다. 1단계에는 종속변수인 정신건강 문제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한국어 수준, 학력, 나이를 공변인으로 투입하였고 1단계 설명력은 3.5%로 나타났고 공변인 중 나이가 정신건강 문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는 독립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조절변수인 자기성장주도성의 4개 하위요인을 투입하였고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설명력은 1단계에 비하여 29.3% 증가한 32.8%였으며 그중 독립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β=.477, p<.0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각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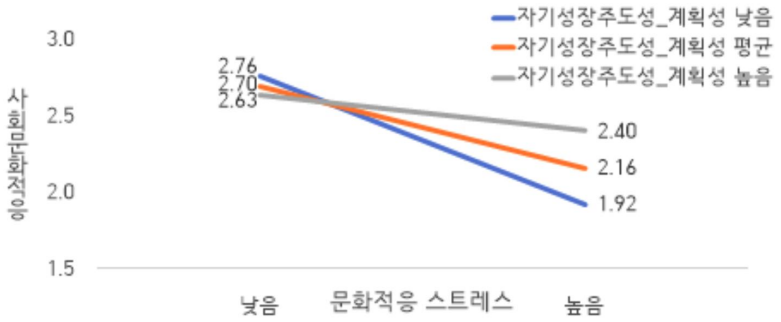

그림 1.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문화 적응의 관계에서 자기성장주도성_계획성의 조절효과

www.kci.go.kr

표 4.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의 관계에서 자기성장주도성의 조절효과 검증

단계	변수	*B*	*β*	*t*	R^2	ΔR^2	*F*
1	한국어 수준	-.037	-.065	-1.236	.035	.035	4.538***
	학력	-.048	-.059	-.987			
	나이	-.012	-.121	-2.038*			
2	한국어 수준	.002	.003	.061	.328	.293	32.488***
	학력	-.043	-.052	-1.028			
	나이	-.014	-.132	-2.638*			
	AS	.412	.477	11.065***			
	PGI_PL	-.062	-.099	-1.136			
	PGI_RC	.000	0	.002			
	PGI_IB	-.025	-.041	-.557			
	PGI_RU	-.064	-.107	-1.706			
3	한국어 수준	-.001	-.002	-.038	.341	.013	1.819
	학력	-.035	-.043	-.848			
	나이	-.013	-.128	-2.537*			
	AS	.583	.676	2.738**			
	PGI_PL	.305	.489	1.654			
	PGI_RC	-.255	-.399	-1.221			
	PGI_IB	.103	.168	.638			
	PGI_RU	-.213	-.354	-1.596			
	AS x PGI_PL	-.154	-.913	-2.078*			
	AS x PGI_RC	.105	.637	1.258			
	AS x PGI_IB	-.053	-.345	-.822			
	AS x PGI_RU	.061	.393	1.106			

주. N=382, *p<.05, **p<.01. ***p<.001, AS: 문화적응 스트레스, PGI_PL: 자기성장주도성_계획성, PGI_RC: 자기성장주도성_변화에 대한 준비, PGI_IB: 자기성장주도성_의도적 행동, PGI_RU: 자기성장주도성_자원활용, 학력 - 학부: 1, 석사: 2, 박사: 3, 박사후: 4, 한국어 수준 - 토픽 급수(1~6급)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고 전체 설명력은 2단계에 비하여 1.3% 증가한 34.1%로 나타났다. 그 중,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기성장주도성의 하위요인인 계획성의 상호작용 항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176, p<.05). 즉 자기성장주도성의 하위요인인 계

www.kci.go.kr

획성이 조절변수로 작용하여 계획성의 수준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의 관계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절효과가 유의한 경우에 대해서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절변수의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및 평균 집단으로 구분하여 단순 회귀선을 그래프로 도식화하여 조절효과의 영향을 추가 확인하였고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를 볼 때,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의 관계는 자기성장주도성의 계획성 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계획성 수준이 낮을 때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 간의 기울기가 급격히 증가하는(b=-.567, p<.001) 반면, 계획성 수준이 높을 때,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 간의 기울기는 보다 완만하게 증가하였다(b=-.263, p=.001).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클수록 정신건강 문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때 계획성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를 완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재한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문화 적응 및 정신건강 문제 간의 관계에서 자기성장주도성의 하위변인들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아래와 같다.

첫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기성장주도성, 사회문화 적응 및 정신건강 문제 간의 상관을 확인한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기성장주도성의 행동적 측면의 두 하위척도를 제외하고는 변인 간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고(Mahmood, & Burke, 2018),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Lee 등(200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둘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문화 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기성장주도성의 하위요인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한국어 수준, 학력, 나이 및 거주기간 등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계획성 하위요인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자기성장주도성 척도는 인지적 측면의 계획성과 변화에 대한 준비, 행동적 측면의 의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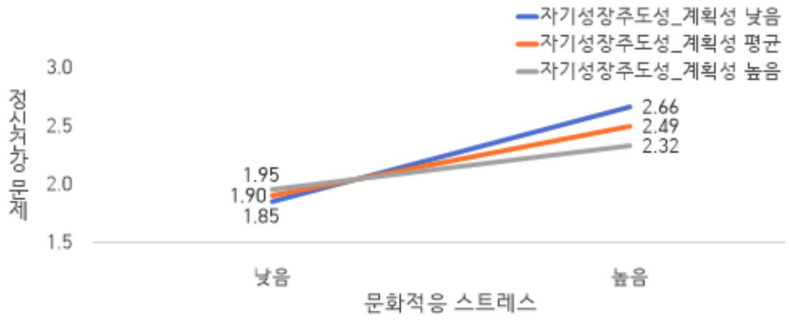

그림 2.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의 관계에서 자기성장주도성_계획성의 조절효과

www.kci.go.kr

행동과 자원 활용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측면 중의 하나인 계획성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즉 자기성장주도성의 계획성 수준이 높을수록 중국 유학생들이 겪는 사회문화 적응에 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이 완화된다.

Robitschek 등(2012) 연구팀은 자기성장주도성의 인지적 측면의 하위척도인 계획성과 변화에 대한 준비가 상관이 높아 둘의 구분 가능 여부를 추후 연구 의제로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지적 측면 중 계획성만 조절효과가 나타나 두 변인이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화에 대한 준비를 측정하는 문항(예: “I know when I need to make a specific change in myself”)은 주로 자신이 언제, 어떤 영역에서 변화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계획성을 측정하는 문항(예: “I set realistic goals for what I want to change about myself”)은 주로 자신이 변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나 계획을 세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Robitschek et al., 2012; Wang, 2020). 두 하위척도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변화에 대한 준비는 자신이 성장해야 할 영역을 인식하고 변화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음을 인식하는 것, 즉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이고 계획성은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한 인식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계획하는 인지적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Robitschek et al., 2012). 변화에 대한 준비는 계획 없이도 가능한 반면, 계획성은 변화에 대한 준비가 선행될 가능성이 크다(손단비, 2016).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학생활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받는 중국 유학생이 사회문화적으로 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한 영역이나 시기를 인식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인식을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PGI의 하위척도들이 15주 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계획성은 정적으로 유의하였고 의도적 행동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Chang et al., 2019). 이에 대해 연구팀은 계획성은 학생들이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특정 성장 목표에 더 잘 일치시켜 성공 가능성을 높이도록 유용한 전략을 제공하는 반면, 개인의 성장을 의식적이고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의도적 행동은 시간이 지나면 만족을 주기보다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제언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통제변인 중 한국어 수준이 사회문화 적응에 유의한 상관을 보여 학력이나 거주기간 및 나이보다는 한국어 수준이 높을 때 사회문화 적응에 유리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 간의 관계에서 자기성장주도성의 하위요인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한국어 수준, 학력, 나이 등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마찬가지로 계획성 하위요인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사회문화적 적응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도 변화 영역이나 시기를 인식하는 것에 그치는 것보다 성장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때 완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개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사회문화적 적응과 심리내적 적응을 포함하고 있는데,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두 가지 측면 모두 변화에 대한 현실적 계획을 수립할 때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알 수

www.kci.go.kr

있다. 그 외 통제변인 중 나이가 정신건강 문제와 유의한 상관을 보여 한국어 수준이나 학력보다는 나이가 많을수록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자기성장주도성 변인이 주로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만 연구됨에 따라 다른 문화권에서도 이 변인의 효과성에 대해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Yakunina et al., 2013b). 또한, 해당 변인이 개인주의 문화가 아닌 집단주의 문화에서도 같은지를 확인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Yang과 Chang(2014)은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성장주도성 척도를 중국어로 번역 및 타당화하였는데 집단주의 문화에서도 동일하게 4요인 척도가 가장 적합함을 확인하였고 그 중 계획성이 심리적 적응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자기성장주도성이 개인주의 문화뿐만 아니라 중국 및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기존 연구들은 유학생들이 영어로 된 척도를 사용하였기에 잠재적인 언어장벽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Yakunina et al., 2013b) Yang과 Chang(2014)은 설문 참여자들이 모국어로 설문을 실시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어로 된 척도로 설문을 실시함으로 기존 연구에서 언어 숙련도가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셋째, Yakunina 등(2013a)의 연구에서는 유학생들의 심리적 적응만을 평가하고 사회문화적 적응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한계점으로 언급하였다. Mahmood와 Burke(2018)의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문화 적응의 관계만 확인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사회문화 적응과 심리적 적응 두 가지 측면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존 연구들은 이 중 한 가지만 확인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포함함으로 개인이 새로운 환경에서의 전반적인 적응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대학교 상담센터에서 유학생 상담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재한 유학생의 40% 이상에 달하는 중국 유학생들이 적응 스트레스로 상담센터에 방문하였을 때 스트레스 자체를 낮추는 노력을 하는 것 외에도 내담자의 자기성장주도성의 정도를 측정하여 유학생의 현재 상태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에 근거하면 높은 수준의 자기성장주도성 및 하위척도는 우울, 디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를 줄이고 사회문화 적응에 도움을 준다. 선행연구에서 교육이나 워크샵 등 개입을 통해서도 자기성장주도성 수준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고(Meyers et al., 2015; Thoen, Robitschek, 2013) 자기성장주도성은 성격 특성이기에 향상되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Robitschek et al., 2019; Weigold et al., 2018). 그러므로 대학교 상담센터에서는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및 워크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학생 내담자의 자기성장주도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즉 내담자가 새로운 환경에서 그에 맞는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당면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돕고 나아가 스스로 계획을 설정하는 연습을 하도록 격려한다면 내담자는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며 정신건강 문제를 잘 극

www.kci.go.kr

복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주관식 자기보고 설문의 특성상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고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다. 자기보고식 설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타당도 문항을 포함시켰지만, 향후 실험이나 종단연구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가능한 많은 대학교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나, 대부분 학교가 서울과 경기 소재여서 연구 결과를 전체 중국 유학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연구를 일반화시키기 위하여 전국 범위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자기성장주도성이 개인주의 문화권은 물론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동일한 집단주의 문화 아래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따라서 추후 다른 지방의 중국 유학생 연구 결과와 본 연구 결과를 비교 검토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문화 적응 척도의 중국어 버전은 수렴타당도를 확인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향후 해당 척도의 타당화 작업이 추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교육통계서비스. (2022).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https://kess.kedi.re.kr/frontPop/publView?publItemId=92120&survSeq=2022&publSeq=3 에서 검색.

김경숙, 김민희 (2014). 학업스트레스와 문화진입스트레스가 한국인 해외유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2), 67-88.

김영린, 이기학 (2012). 심리적 독립성, 의존부정성향, 자기성장주도성에 따른 하위집단별 대학생활적응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차이. 상담학연구, 13(5), 2251-2270.

김용운, 권보영, 이후석 (2021).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심리적자본이 자립준비도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성장주도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8(11), 175-201.

김정희 (2022). 자활사업참여자의 가족탄력성이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8), 607-618.

김종원, 김은정 (2019).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대학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24(4), 99-112.

김지근, 이기학 (2011). 부, 모의 자율성 지지와 진로결정에의 몰입의 모형 검증: 자기성장주도성과 환경에 대한 진로탐색행동 및 자신에 대한 진로탐색행동을 매개변인으로. 상담학연구, 12(1), 81-97.

남순현 (2021). 중국인인가? 유학생인가? 중국 유학생의 민족정체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전략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2), 745-770.

대경일보 (2021). 출생률 저하에 점점 줄어가는 1학년… 신입생 모집難 고착화. https://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446 에서 검색.

매일경제 (2019). 위기의 대학…외국인 유학생

www.kci.go.kr

13% 늘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8960356 에서 검색.

머니투데이 (2019). “시끄럽고 더러워”… 중국인 유학생은 무조건 싫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11314545391817 에서 검색.

문정희, 천성문 (2020). 대학생용 심리적 독립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21(3), 253-276.

박정우 (2016).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공감능력, 학교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 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손단비 (2016). 한국판 자기 성장 주도성 척도 Ⅱ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계숙, 유 행 (2014). 중국 한자녀가정 대학생자녀의 효의식과 헬리콥터부모역할에 대한 지각. 가족과 문화, 26(1), 122-151.

이승종 (1995).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지원, 이기학 (2015). 대학생의 진로소명과 삶의 만족의 관계: 진로결정몰입과 전공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4), 953-976.

장서흔, 이용진 (2019). 재한 중국유학생의 자기성장 유학동기와 유학생활만족도간의 관계: 구직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업교육연구, 33(5), 1-25.

장이츠, 김민아 (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이후 한국 거주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적 낙인 경험. 보건사회연구, 41(1), 22-41.

정옥정, 박진형, 허난설 (2021). 재한 중국 학부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군집 유형 분석 및 유형별 특성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22(4), 889-918.

정혜선 (2016).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 영향요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및 진로스트레스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7), 63-72.

하정희 (2008).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73-496.

황지인 (2008). 재한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bbott, M. W., Wong, S., Giles, L. C., Wong, S., Young, W., & Au, M. (2003). Depression in older chinese migrants to auckland.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7*(4), 445-451.

Aiken, L. S., West, S. G., & Reno, R. R.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Sage Publications, Inc.

Aljaberi, M. A., Alsalahi, A., Juni, M. H., Noman, S., Al-Tammemi, A. A. B., & Hamat, R. A. (2021). Efficacy of interventional programs in reducing acculturative stress and enhancing adjustment of international students to the new host educational environment: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15), 7765.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www.kci.go.kr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Berry, J. W. & Sam, D. L. (Eds.). (2006). *The cambridge handbook of acculturation psychology* (pp. 27-42). New York, USA: Cambridge University Press.

Berry, J. W., Kim, U., Minde, T., & Mok, D.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3), 491-511.

Chang, E. C., Yang, H., Yi, S., Xie, F., Liu, J., Ren, H., ... & Chang, O. D. (2019). Is personal growth initiative associated with later life satisfaction in chinese college students? a 15 week prospective analysi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2(*4), 413-418.

Choi, A. Y., Israel, T., & Maeda, H. (2017).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he internalized racism in asian americans scale (IRAA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4*(1), 52-64.

Cintron, J. A., Carter, M. M., Suchday, S., Sbrocco, T., & Gray, J. (2005). Factor structure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anxiety sensitivity index among island puerto ricans. *Anxiety Disorders, 19*(1), 51-68.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Gong, X., Xie, X.-y., Xu, R., & Luo, Y.-j. (2010).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chinese versions of dass-21 in chinese college students. *Chines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8*(4), 443-446.

Hamamura, T., & Laird, P. G. (2014). The effect of perfectionism and acculturative stress on levels of depression experienced by east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42*(4), 205-217.

Hardin, E. E., Weigold, I. K., Robitschek, C., & Nixon, A. E. (2007). Self-discrepancy and distress: The role of personal growth initia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1), 86-92.

Koneru, V. K., De Mamani, A. G. W., Flynn, P. M., & Betancourt, H. (2007).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Current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12*(2), 76-96.

Lapsley, D. K., Rice, K. G., & Shadid, G. E. (1989).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3), 286-294.

Lee, J. S., Koeske, G. F., & Sales, E. (2004). Social support buffering of acculturative stress: A study of mental health symptoms among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8*(5), 399-414.

Lovibond, P. F., & Lovibond, S. H. (1995). The structure of negative emotional states: Comparison of the depression anxiety stress scales (DASS) with the beck depression and anxiety inventori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3*(3), 335-343.

Mahmood, H., & Burke, M. G. (2018). Analysis of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ocultural

www.kci.go.kr

adaptation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at a non-metropolitan un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ents, 8*(1), 284-307.

Ma, Y., & Zhan, N. (2020). To mask or not to mask amid the covid-19 pandemic: How chinese students in America experience and cope with stigma. *Chinese Sociological Review, 54*(1), 1-26.

Meyers, M. C., van Woerkom, M., de Reuver, R. S., Bakk, Z., & Oberski, D. L. (2015). Enhancing psychological capital and personal growth initiative: Working on strengths or deficienci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2*(1), 50-62.

Moussa, M. T., Lovibond, P. F., & Laube, R. (2001). Psychometric properties of a chinese version of the 21-item depression anxiety stress scales (DASS21). Sydney, NSW: *Transcultural Mental Health Center. Cumberland Hospital.*

Oh, Y., Koeske, G. F., & Sales, E. (2002). Acculturation,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2*(4), 511-526.

Robitschek, C. (1998). Personal Growth Initiative: The construct and its measur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0*(4), 183-198.

Robitschek, C. (1999). Further validation of the personal growth initiative scal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1*(4), 197-210.

Robitschek, C., & Kashubeck, S. (1999). A structural model of parental alcoholism, family functioning, and psychological health: The mediating effects of hardiness and personal growth orient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2), 159-172.

Robitschek, C., Ashton, M. W., Spering, C. C., Geiger, N., Byers, D., Schotts, G. C., & Thoen, M. A. (2012).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personal growth initiative scale ii.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9*(2), 274-287.

Robitschek, C., Cukrowicz, K., Brown, S. L., & Ciavaglia, A. (2022). Personal growth initiative as a buffer against suicide ideation severity in psychotherapy outpatients with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8*(9), 1752-1763.

Robitschek, C., Yang, A., Villalba II, R., & Shigemoto, Y. (2019). Personal growth initiative A robust and malleable predictor of treatment outcome for depressed partial hospital patient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46,* 548-555.

Sandhu, D. S., & Asrabadi, B. R. (1994).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1), 435-448.

Searle, W., & Ward, C. (1990). The prediction of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adjustment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4*(4), 449-464.

Shigemoto, Y., Low, B., Borowa, D., & Robitschek, C. (2017). Function of personal growth initiative on posttraumatic growth, posttraumatic stress, and depression over and above adaptive and maladaptive rumination.

www.kci.go.k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3(9), 1126-1145.

Song, B., Zhao, Y., & Zhu, J. (2021). COVID-19-related traumatic effects and psychological reactions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Epidemiology and Global Health, 11*(1), 117-123.

Tan, Y. (2013). The study on the cross-cultural adaption of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chinese-foreign higher education cooperation programs. *Minzu University of China, Doctoral Dissertation.*

Taušová, J., Bender, M., Dimitrova, R., & van de Vijver, F. (2019). The role of perceived cultural distance, personal growth initiative, language proficiencies, and tridimensional acculturation orientations for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69,* 11-23.

Thoen, M. A., & Robitschek, C. (2013). Intentional growth training: Developing an intervention to increase personal growth initiative. *Applied Psychology: Health and Well Being, 5*(2), 149-170.

Virta, E., Sam, D. L., & Westin, C. (2004). Adolescents with turkish background in norway and sweden: A comparative study of their psychological adaptation.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5*(1), 15-25.

Wang, Y. (2020). Influence of mindfulness and personal growth initiative on intelligent reasoning and regulation of reflection perspective. *Nanjing Normal University, Master's Thesis.*

Ward, C., & Kennedy, A. (1999). The measurement of sociocultural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3*(4), 659-677.

Weigold, I. K., Boyle, R. A., Weigold, A., Antonucci, S. Z., Mitchell, H. B., & Martin-Wagar, C. A. (2018). Personal growth initiative in the therapeutic process: An exploratory stud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6*(4), 481-504.

Weigold, I. K., Weigold, A., Russell, E. J., Wolfe, G. L., Prowell, J. L., & Martin Wagar, C. A. (2020). Personal growth initiative and mental health: A meta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8*(4), 376-390.

Wildavsky, B. (2010). Why foreign students don't crowd out americans.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10,* 48-49.

Woerkom, V. M. & Meyers, M. C. (2019). Strengthening personal growth: The effects of a strengths intervention on personal growth initiative.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92*(1), 98-121.

Yakunina, E. S., Weigold, I. K., & Weigold, A. (2013a). Personal growth initiative: Relations with acculturative stress and international student adjustment. *International Perspectives in Psychology: Research, Practice, Consultation, 2*(1), 62-71.

Yakunina, E. S., Weigold, I. K., Weigold, A., Hercegovac, S., & Elsayed, N. (2013b). International students personal and multicultural strengths: Reducing acculturative stress and promoting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1*(2), 216-223.

Yang, B., & Clum, G. A. (1994). Life stress,

www.kci.go.kr

social support, and problem solving skills predictive of depressive symptoms, hopelessness, and suicide ideation in an asian student population: A test of a model.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24*(2), 127-139.

Yang, H., & Chang, E. C. (2014). Examining the structur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chinese personal growth initiative scale-ii: Evidence for the importance of intentional self-change among chines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6*(5), 559-566.

Yoon, E., Chang, C. T., Kim, S., Clawson, A., Cleary, S. E., Hansen, M., ... & Gomes, A. M. (2013). A meta-analysis of acculturation/ en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1), 15-30.

Zhao, Y. (2020). Psychological impacts of the covid-19 outbreak on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Examining prevalence and associated factors. *World,* 7(3), 45-58.

원 고 접 수 일 : 2023. 02. 27
수정원고접수일 : 2023. 04. 24
게 재 결 정 일 : 2023. 06. 28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3, Vol. 35, No. 3, 1239-1259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on Sociocultural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The Moderation Effect of Personal Growth Initiative

Lan Quan **Jung Hee Ha**

Hanyang University

Student Professor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moderation effect of Personal Growth Initiativ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ocultural adjustment, as well as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mental health problems experienced by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South Korea, who constitute more than 40%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country.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among Chinese students at Korean universities, using four scales in the Chinese language. Data collected from 382 participants were analyzed using SPSS 26.0. The Personal Growth Initiative-II (PGIS-II) scale comprises four sub-scales: Readiness for Change, Planfulness, Using Resources, and Intentional Behavior. Findings indicated that the Planfulness sub-scale showed a moderation effect on both dependent variables. Higher levels of Planfulness mitigated the impact of acculturative stress on sociocultural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problems. Subsequently,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s results, practical implications for counseling,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 Personal Growth Initiative, Acculturative Stress, Sociocultural Adjustment, Mental Health Problems

www.kci.go.kr